

# ‘신경영·혁신’ 화두... 동반성장·사회공헌 힘쓰자 4개 기업 신년사

### “신경영 20년, 다시 한번 바꾸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일 “삼성의 선두 사업은 끊임없이 추격받고 있고, 부진한 사업은 시간이 없다. 다시 한 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년간 양에서 질로 대전환을 이뤘듯이 이제 질을 넘어 제품·서비스·사업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신경영 20년간 글로벌 1등이 된 사업도 있고, 제자리걸음인 사업도 있다. 5년 전, 10년 전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와 문화는 과감하게 버려야”고 호소했다.

이어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며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사업구조의 혁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기술혁신, 글로벌 경영체제를 완성하는 시스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글로벌 기업과 사활을 걸어야 했고 특약전쟁에도 시달려야 했다고 돌아본 이 회장은 “불황기일수록 기회는 많다. 남보다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고 새로운 기술·시장을 만들어 내자. 핵심 사업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기술의 융·복합화로 신사업을 개척하자”고 당부했다.

### “혁신으로 저성장 시대 대비하자”

####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2일 “올해 자동차 부문이 글로벌 시장에서 786만대를 생산·판매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올해 그룹 경영 방침을 ‘전 부문의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기반 강화’로 제시한 뒤 현대차는 국내 68만2000대와 해외 412만8000대 등 총 490만대를, 기아차는 국내 48만대와 해외 248만대 등 총 296만대를 각각 판매 목표로 설정했다.

정 회장은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기술 융복합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됐다”고 진단한 뒤 “글로벌화 된 사업장과 관리체계를 혁신해 조직의 효율과 역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철강과 건설 분야의 경우, 고장력 강관과 특수강 등 신소재 개발에 주력해 완성차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건설 신공법 개발과 환경·에너지 건설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협력사와 동반성장 활동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 “제2창업... 워크아웃 졸업하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일 ‘제2창업’을 기치로 내걸고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의 올해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날 “금호타이어는 요코하마타이어와의 전략적 제휴, 용인연구소 준공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자. 금호산업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워크아웃을 기필코 졸업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직원과 함께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며 사회에 공헌하는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자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에서 지원받지 않는 기업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은 2010년부터 5년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놓고 진통을 겪기도 했으며 박삼구 회장은 지주사인 금호산업의 대표이사를 직접 맡아 경영 정상화를 지휘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시무식에 이어 신입사원 입사식에서 “노력은 재능을 이긴다는 말을 늘 기억하기 바란다”며 “특출한 재능도 꾸준한 노력 없이는 무릎 꿇는 법이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오며 같이 열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경영역량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자”

####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2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역량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효성의 사업은 상당 부분 글로벌화됐고, 사업구조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졌지만, 의식과 역량의 수준이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새해에는 반드시 개선해 업무의 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자”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새해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경기가 나아져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이어지리라 예상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증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뒤 “외부 환경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개선해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효성 창립 50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이 부회장은 “과거의 구성과 관행,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는 효성이 되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니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기업문화를 확립하는데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밀가루·휴지 등 31개 생필품 물가 공개

### 이달부터 소비자단체 통해 공식... 물가 감시 기능 강화

밀가루와 과자, 휴지 등 생활에 밀접한 31개 생필품 품목의 물가가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달부터 공개된다. 이들 품목의 가격 비교 정보 뿐 아니라 원가분석 내용까지 공식 돼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의 물가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물가 관련 소비자단체인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물가감시센터)는 이달 중 31개 생필품 가격정보와 원가 분석, 지역별 가격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열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생필품 원가분석을 통해 소비자 생활물가를 감시하고 부당하게 오른 품목이 없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들은 9개의 유관 소비자단체를 활용해서 서울시 25개구에서 밀가루와 설탕, 고추장, 과자, 리본, 즉석밥, 우유·분유, 콜라, 커피, 아이스크림, 이력, 휴지, 세제 등 생활필수품·가공식품 31개 품목, 90개 제품의 가격을 매달 한 번씩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식화 예정이다. 또 지역·업소별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가 수집·축적한 가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가격 변동

을 시계열로도 제공한다. 해당 품목의 주요 원재료 시세 및 환율 변동, 평균 원재료 가격과 출고, 시장가격 비교 등 원가 분석 정보를 제공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편승해 부당하게 제품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소비자 단체가 제시하는 이런 형태의 생필품 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를 보완하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1% 안팎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서민 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체감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계청은 이런 과리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소비자물가 식료품·의류 등에 대한 물가지수 가중치를 높이고 주류·담배·교육 등 품목은 낮춘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량을 늘림으로써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들이 함부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도록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소비자단체의 가격 비교·원가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신학기 관측행사... 삼성전자 ‘S아카데미’ 개최

삼성전자가 졸업·입학철을 맞아 3월31일까지 PC와 프린터 관측 행사인 ‘2014 삼성전자 S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사진)

S아카데미는 정보기술(IT) 업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시작해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대표적인 신학기 관측 행사로, PC나 프린터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포인트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행사는 대학생들이 평소 동경하던 ‘로망’을 주제로 한 강의와 ‘로망속게임’ 이벤트, 동아리방 사진응모 이벤트를 곁들이 열린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크로사이트(www.s-academy.co.kr)에서 볼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20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일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이들 주택이 도입된 지 10년이 가까워 오면서 임대기간 만료로 거주자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이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기로 했다. 원룸형 매입임대주택(면적 14~50㎡)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 세 일 글

## “지역친화경영으로 사랑받는 은행 될 것”

### 허승택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해 인력운영과 사업활성화, 점포 효율화를 통해 농협금융 수익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2일 취임한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허승택 본부장은 “지역친화경영을 바탕으로 광주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역 금융을 선도하는 리딩뱅크가 되겠다”며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도록 폭넓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허 본부장은 “사회공헌도 1위 은행으로서 지속적인 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신뢰받는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본부장은 강진출신으로 살례시 고와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복선 전지점장과 강진군지부장, 퇴직연금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희기자 lion@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59만원** 신제품 기적중인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